

지역 매아리

고창군, 장애인 복지 인프라
직업훈련시설 신축 본격 착수

고창군이 장애인들의 취업과 직업 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 신축에 본격 착수한다.

3월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을 위한 국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달 중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설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지구 장애인복지관 옆 부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함께 10억원(400㎡ 규모)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완공된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편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소 소외됐던 지역 장애인 복지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가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첨단방사선연구소 지역
기술사업화 교류 간담회 가져

정읍시가 신장동에 소재한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한 산학협력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정읍 3대 국책연구소(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첨단안전성연구본부)와 농축산식품부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연구 기관과 지역 내 기업 간 소통과 기술교류 자리를 마련, 산학협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3일 첨단방사선연구소와 기업 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첨단방사선연구소 임윤목 공업환경연구부장을 비롯한 6명의 소속 연구원과 3AC, 이원갑포텍, 크린앤사이언스, KCFT 등 자동차 부품과 환경 소재 생산 기업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3대 국책연구소와 농축산식품부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기업체를 초청하는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구기관과 기업 간 소통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애로 사항을 파악해 나가겠다"며 "기술 이전과 창업 등 기술 사업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첨단방사선연구소 공업환경연구부는 유해가스 검색 필터 기술과 항균섬유 제조 기술, 차세대 전지재료 연구, 신소재·환경처리 연구를 전담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참뽕 자타공인 명품 인증

국가브랜드 대상 9년 연속 수상 '쾌거' ... 세계적인 먹거리로 발돋움

부안군 대표 브랜드인 부안참뽕이 9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국가브랜드선정회, 브랜드인터내셔널 글로벌경쟁력 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19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내 산업·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부문별 최고의 국가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부안군은 지난 2005년부터 양잠산업을 기능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선정하고 뽕·오디 기반시설에 지속적인 투자로 참뽕연구소 및 가공연구센터, 전북도 잠업시험장, 누에타운, 참뽕체험장 등을 조성했으며 관광사업과 연계해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디와 뽕잎, 누에 등을 이용한 술, 음료, 차, 비빔밥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특히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양잠농업보전의 필요성이 높



부안군 대표 브랜드인 '부안참뽕'이 9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게 평가돼 부안 유품 양잠농업이 국가중요문화유산 제8호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은 바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참뽕이 9년 연속으로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부안뽕을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농업인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부안참뽕의 명품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가 세계적인 사랑받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엄격한 품질관리로 10년간 국가 대표 자리 굳건히 지켜

고창 황토배기 수박·복분자 선연,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명품 농특산물인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고창 복분자 선연'이 10년간 국가 대표 브랜드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 주최 '2019국가브랜드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 시상식에서 수박과 복분자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창 황토배기 수박은 10년 연속, 복분자 선연은 9년 연속의 대상 수

상의 대입이다. 황토배기 수박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핵가족 증가에 대응하는 소과(小菓)형태의 수박을 출시하는 등 시장 대응력을 높였다.

고창 복분자 선연은 지리적표시제 등록, 생산이력제 실시 등 엄격한 품질관리 노력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국가브랜드대상'은 해당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경영성과 등을 기준으로 부문별 후보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후 16일 동안 국내 소비자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을 투표 받고, 브랜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최종선정이 이뤄졌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이중 고창군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고창 농산물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치매가족 행복까지' 챙기는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헤어림 교실 3기 성황리 마무리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인 '헤어림 교실' 3기를 운영했다.

헤어림 교실은 치매어르신과 함께 살 지내기 위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치매환자의 가족과 상담을 통해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요인을 파악

하고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했다.

프로그램에서는 치매에 대한 편견 해소와 두려움 극복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치매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수 있도록 지친 심신을 돌아보고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이어졌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가족 지지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헤어림 가족교실' 4기는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539-673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으로 떠나는 지질탐사 여행

부안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전문지질교육 활성화

부안군은 고창군과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우수한 지질·지형자원을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우리나라 열 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서해안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채석강과 적벽강은 우리나라 대표 중생대 백악기 퇴적-화산학적 우수성을 지닌 국가지질공원으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연계 기반 시설이 풍부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교사,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부안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4월 1일~3일(2박 3일),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학생 30여명은 신동복 교수와 함께 부안의 지질명소인 적벽강과 채석강의 지질현장답사를 위해 부안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3일 동안 대학원생들과 조를 이루어 부안의 지질명소인 변산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암상의 분포를 조사하고 페르라이트, 단층, 화성관입암성 등 다양한 지질구조에 대한 관찰을 통해 답사지역의 형성원인 및 과정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신동복 교수는 "매년 학생들과 현장답사를 위해 전북 부안의 채석강과 적벽강을 방문하여 지질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부안의 지질명소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질구조들이 모두 상에 잘 보존되어 있어 최고의 지질교육장소 손꼽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과 7월에도 문항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은 '부안으로 떠나는 지질탐사 여행' 책자를 통한 채석강과 적벽강 지질현장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2019년에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지질공원 협력마을을 유유마을과 모항마을 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상품 개발, 객관적 학술기치 입증에 위한 부안 술섭지질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부안군과 고창군은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2022년까지 세계 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으로 등재하고자 다양한 지질관광·지질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의 화려한 봄날 주말까지 네버엔딩

벚꽃축제 7일까지 연장 개최

봄을 수놓는 꽃의 향연 2019 정읍 벚꽃축제가 이달 7일까지 연장 개최된다.

정읍시는 지난해 예상치 못한 꽃샘추위로 인해 벚꽃 개화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당초 3일까지 개최하려 했던 '2019 정읍벚꽃축제'를 오는 7일까지 4일 연장하여 개최한다.

유진섭 시장은 "꽃샘추위로 예상보다 벚꽃의 개화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관련 부서 실무자 협의 등을 거쳐 축제 일정을 4일 연장한다"며 "주말 문화공연과 간식 먹거리 부스, 야간 경관 조명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연장 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벚꽃의 아름다움을 더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했으니 가족과 함께 많이 찾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벚꽃축제 주무대인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정읍천 벚꽃로를 중심으로, 4.7(일)에는 작은 음악회 무대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중인 상춘객 쉼터 공간, 로망틱 포토존과 먹거리와 농·특산물판매부스, 각종 체험부스 및 제15회 지생



화, 제8회 지생차 페스티벌도 함께 연장 운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6~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정주교에서 초산교까지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추가 운영하여 상춘객이 걸으면서 즐기는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시민과 상춘객이 새 봄 아름답게 피어난 벚꽃과 함께 다양한 정읍의 향기를 흠뻑 느끼길 바란다"며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도시 정읍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명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